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신중할 필요, 마이런 이사는 큰 폭 금리인하 주장
  - EU, 미국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는 전월비 상승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총재는 경기회복 지원 강조
  - 일본 10년물 국채수익률, 17년 만에 최고.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주요 인사의 발언, Nvidia의 대규모 Open AI 투자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4%],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등 기술주 강세 이어지며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Porsche 실적 부진 가능성, 자동차 관련주 약세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마이런 이사의 큰 폭 금리인하 주장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강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389.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1.5원, 0.08% 하락). 한국 CDS 상승

|    |      | 9/22일   | 9/19일   | 전일대비   |                 |       | 9/22일   | 9/19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6,693.8 | 6,664.4 | +0.44%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4.15%   | 4.13%   | +2bp   |
|    | 유럽   | 553.40  | 554.12  | -0.13% |                 | 독일    | 2.75%   | 2.75%   | +0bp   |
|    | 중국   | 3,828.6 | 3,820.1 | +0.22% |                 | 영국    | 4.71%   | 4.72%   | -0bp   |
|    | 일본   | 45,494  | 45,046  | +0.99% | CDS<br>5y       | 한국    | 22bp    | 20bp    | +2bp   |
|    | 한국   | 3,468.7 | 3,445.2 | +0.68% |                 | 중국    | 35bp    | 33bp    | +2bp   |
| 환율 | 달러지수 | 97.34   | 97.64   | -0.31% | 위험<br>지표        | EMBI+ | -       | 371     | -      |
|    | 유로화  | 1.1803  | 1.1746  | +0.49% |                 | VIX   | 16.10   | 15.45   | +4.21% |
|    | 엔화   | 147.72  | 147.95  | +0.16% |                 | WTI유  | 62.64   | 62.68   | -0.06% |
|    | 위안화  | 7.1145  | 7.1182  | +0.05% | 원자재             | 구리    | 457.3   | 456.9   | +0.09% |
|    | 원화   | 1,392.6 | 1,393.6 | +0.07% |                 | 금     | 3,746.7 | 3,685.3 | +1.67%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신중할 필요. 마이런 이사는 큰 폭 금리인하 주장

-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9월 FOMC에서 고용 둔화를 고려하여 0.25%p 인하를 지지했으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언급. 지금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부연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연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기는 '2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 역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거론하며 추가적인 통화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 특히 추가 통화완화에 나설 경우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하지만, 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이런 이사는 현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으며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이민 및 조세정책, 규제 변화 등으로 중립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 금리는 이보다 약 2%p 높아 불필요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
- CME의 FedWatch는 내년 말까지 총 4회의 금리인하(금년 10월과 12월, 내년 3월과 7월, 각 0.25%p)를 예상. 한편,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기업과 가계가 관세 문제를 겪어야 하지만, 양호한 소비지출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 베센트 재무장관은 11명의 연준 의장 후보자들 가운데 다음 주까지 10명의 후보들과 면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Goldman Sachs, 연말 S&P500지수 전망치는 6800. Citi는 금가격 전망 상향

- Goldman Sachs는 연말 S&P500지수 전망치를 6800로 제시하여 이전(6600) 대비 상향. 이는 현재 지수(9/22일 기준 6694) 대비 약 2% 높은 수준. 6개월 및 12개월 후에는 각각 7000, 7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양호한 기업실적이 이어지고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밸류에이션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Citi는 미국 재정적자 및 달러화 지위 불안, 세계경제 우려 등으로 금 가격이 3개월 이내에 온스당 38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EU, 미국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는 전월비 상승

- 올로프 길 부대변인은 미국 측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이는 8/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 양측은 이미 무역합의에 성공했으나 지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 트럼프의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한 상황
- 한편, EU 통계국이 발표한 유로존 소비자신뢰는 -14.9를 기록, 전월(-15.5) 대비 상승 마감. 이는 이전에 비해 소비자의 향후 경기 전망이 개선되었음을 시사

##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총재는 경기회복 지원 강조

- 1년 및 5년 LPR을 모두 동결하여 이전과 같은 3.0%, 3.5%로 제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나섰으나 미국과의 무역갈등 완화 징후, 최근의 양호한 수출 등을 고려하여 동결을 선택했다고 평가
- 판공성 총재는 국내 여건을 우선시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현재 통화정책은 경기를 지원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 ■ 일본 10년물 국채수익률, 17년 만에 최고.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

- 22일 10년물 국채수익률(1.65% +1bp)은 '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는 일본은행이 9월에 금리를 동결했으나 이르면 10월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등에 기인.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카다 소우 이사와 타무라 나오키 이사 등이 0.25%p의 금리인상을 제안

## ■ 호주 중앙은행 총재, 국내 경제 여건은 양호. 필요 시 추가 완화 가능

- 볼록 총재는 자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다고 평가. 다만 외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 시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9/23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및 보우먼 이사 발언, 미국 9월 S&P 글로벌 종합 PMI
- 미국 9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유로존 9월 HCOB 종합 PMI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둔화가 더욱 심각한 위험 - 블룸버그

(Inflation is the lesser evil)

- 미국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임금 정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가 심화. 일례로 인플레이션은 2.5~3.0% 수준 유지하지만, 식품·전기·보험료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증가. 다만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
- 이러한 영향으로 2/4분기 소비에서 소득 상위 10% 가계의 비중은 1989년 이후 최고 수준. 실제로 최근 고소득층과 금융자산 보유층이 소비를 주도.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는 차입에 의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큰 기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연준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

### ■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금리인하 주기에 반전 기대되나 역풍 가능성도 상존 - WSJ

(Lower Rates Are Set to Juice the Commercial-Property Market)

-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는 장기간 진행. 하지만, 금리인하 주기가 시작된다는 시각에 부동산 매매·대출 증가, 일부 건설 프로젝트 시행 기대가 고조. 특히, 장기 금리(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큰 주택시장과 달리, 단기 부채와 변동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차입비용 감소 등으로 활성화 전망 강화(CBRE)
- 이에, 최근 상업지구 빌딩, 아파트 건물, 사무실, 대형 건물 등의 매매가 증가하고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반전 징후도 발생(MSCI). 하지만,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2%) 이상의 금리, 고용과 임금 상승률 둔화,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 ■ 프랑스, 예산적자 심화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대표 국가 이탈리아를 대체 - 블룸버그

(France Is Replacing Italy as Europe's Poster Child for Fiscal Woe)

- 프랑스는 재정우려 등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 반면 이탈리아는 '21년 이래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양국 간 국가 신용등급 격차가 줄어들면서 프랑스가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로 부각될 우려
- 특히 프랑스의 경제 규모 대비 지출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또한 프랑스는 이탈리아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크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부채 상환 비용 제외 장기 재정 건전성이 양호. 프랑스는 정부수입의 절반 이상(51.8%)을 세금에 의존하여 기업 부담도 가중. 다만 프랑스는 경제 성장을 측면에서 우위

■ 중국의 노동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해소에 걸림돌. 당국의 조치가 요구 - 블룸버그

(China's Labor Market Distress Spreads at Worst Time for Deflation Fight)

- 최근 디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발생. 그러나 도시 지역 실업률이 2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임금하락 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 가능성도 제기. 특히 청년실업률 상승, 시도입 확대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은 노동시장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 필요
- 이러한 상황은 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로 이미 위기에 직면한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유도할 소지. 아울러 정부의 과잉생산 억제 시도가 고용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 이에 당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

■ 미국 트럼프의 對중국 외교, 강경 노선에서 온건한 대응으로 변모 - Financial Times

(Trump's U-turn on China)

■ 미국 소형주 주가 상승, 경기 및 통화통상정책이 지속 여부 좌우할 전망 - 블룸버그

(Does the small-cap rally have staying power?)

■ 연준의 제한적인 달러화 통화스와프 허용, 외교적 마찰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Should Financial Rescues Be Left to an Elite Club?)

■ 채권 투자자, 연준과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중기물(5~7년) 국채에 집중할 소지 - 블룸버그

(Bond Traders Lean Into 'Sweet Spot' Amid Doubts on Fed Path)

■ 유럽의 유로화 국제화 전략, 역내 국가 간 이견 등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Reuters

(Euro's 'global moment' risks slipping away amid political division)

##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